

《主 題》

외국의 자가통신설비 이용현황

김 창 기

(한국전력 정보시스템처 부처장)

■ 차 례 ■

- I. 머리말
- II. 자가통신설비의 발전 및 제도적 규제
- III. 일본의 자가통신설비를 이용한 통신사업 진출
- IV. 프랑스 전력공사 통신사업 참여
- V. 맺음말

I. 머리말

우루구아이 라운드 타결로 인하여 오늘날의 세계는 국경없는 무한경쟁의 시대를 맞게 되었다. 우리의 정보통신서비스 산업도 개방이 불가피해 짐에 따라 국내시장에서 신진 외국업체와 치열한 경쟁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통신 정책의 대폭적인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공공 통신망 이외에도 별도의 통신망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이 자가통신망을 확대해 가고 있는 실정이며 통신시장의 개방에 있어서는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국가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내 통신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볼 일이라 생각된다. 이를 위하여 외국의 자가통신 설비의 발전추세와 우리나라와 비슷한 여건에 있는 일본 등을 중심으로 이의 활용현황에 대해 조사 분석해보고자 한다.

II. 외국의 자가통신설비의 제도 및 발전추세

1. 일 본

일본의 전기통신은 1984년 까지는 일본전신전화공

사(NTT)와 국제전신전화주식회사(KDD)의 독점을 기본으로하는 전기통신제도를 취하였다. 그러나 1985년 전기통신관련법의 개혁으로 NTT가 민영화 됨에 따라 경쟁을 추구하는 전기통신체제로 전환되었다.

이에따라 일본의 자가통신관련법도 자유화 되었는데 1985년 자영통신설비에 대한 규제조항이 모두 폐지되어 별도의 법규제를 받지않고 통신사업자와 똑같은 법을 적용받게 되었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 자가통신설비 보유자가 일정 요건만 갖추면 전기통신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자가통신설비 보유자인 국철, 전력회사 등이 자가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전송회선사업에 뛰어 들었고 통신설비를 대폭 확충하고 계속하여 투자를 확대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자가전기통신설비가 없는 경우 통신회선을 보유하려는 경향은 그렇게 많지않다. 이는 초기 시설경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자가통신설비 보유자인 국철, 전력회사 등과 특수한 조건을 가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본기업들은 자영망을 설치하는 대신 주로 전용회선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어 전용회선 사업이 매우 성공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2. 미 국

미국의 전기통신은 민영의 역사를 가진다. 미국은 1844년 Western Union Telegraph의 전신사업과 1885년 미국전신전화 주식회사(AT&T)의 전화사업을 시작으로 전기통신이 시작 되었다.

제도적인 측면으로는 1934년 미국의 전기통신체제가 통신법으로 완성되었으며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설치되어 모든 통신사업자는 FCC 및 규제기관의 규제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경쟁도입, 자유화, 비규제화를 하면서 1984년 AT&T가 7개의 지역독립회사로 분할되는 등 자유화가 더욱 진전되었다.

자가전기통신설비 사항의 경우도 매우 자유화 되어 있다. 미국에서는 Private Network 또는 Private Circuit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직접 설비를 설치하는 것 외에도 전용선 서비스 등 설비를 임차하여 자가시스템을 구성하는 경우도 포함된 것으로 통칭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 사실통신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법 규정화 되어있는 자가통신설비와는 좀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미국의 경우 사실통신망은 전용 임차선과 자기소유의 설비를 혼합하는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영 국

영국의 경우 전기통신체제에서 자유화의 도입은 1981년 전기통신법의 제정으로 영국전기통신(BT)이 탄생되었으며 1984년 BT와의 상호접속, 부가가치 서비스에 대한 정책확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통신분야의 자유화가 촉진되었다.

자가 전기통신체제의 경우 자가통신설비의 설치는 규제되고 있다. 하지만 특수허가로서 영국가스공사, 영국철도와 같은 자가통신은 타통신망에 접속하지 않는한 별도의 허가없이 설치 가능하다.

따라서 영국에서는 제한된 범위내에서만 자가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사설시스템을 구축하더라도 BT나 머큐리의 설비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특수허가에 의한 자가설비는 타통신망에 접속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사용상에서도 제한되고 있어 자가통신망의 설치는 크게 확대되지 않는 실정이다.

4. 독 일

독일의 전기통신은 1847년 브레멘 전신회사가 공중전신업무를 개시하면서 시작되었다. 1990년 통독

에 의해 전기통신이 합병된 이후에도 구서독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독일의 전기통신체도는 전기통신기본법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설치법"과 전기통신 사업법에 해당하는 "DBP조직법"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데 독일은 유럽 국가 중에서 전기통신분야의 국영 독점체제를 가장 공고히 유지해 오고 있는 국가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전 유럽에 일고 있는 민영화, 시장개방의 추세에 따라 독일에서는 80년대 중반이후 전기통신시장에 경쟁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자가통신설비의 경우 아직은 규제가 심하고 기본적인 전신, 전화, 무선등의 제공을 위한 전송회선 설비의 설치, 운영은 제한된 범위에 한정되어 있어 자가통신설비의 설치는 별로 없는 실정이다.

Ⅲ. 일본의 자가통신설비를 이용한 통신사업 진출

1. 일본의 자가통신설비 발전 개요

일본의 경우 자가통신설비를 보유하고 있던 회사로는 국철, 도로공단 및 전력회사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들은 자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막대한 자가통신설비와 정보통신자원 및 인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1985년 일본정부의 전면적인 전기통신시장 개방화 조치는 이들 시설들을 활용하여 전기통신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고, 자기사업 이외의 분야로 경영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던 이들은 적극적으로 전기통신사업에 참여 하게 되었다.

또한 전기통신관련법의 개혁 이후 수많은 신규사업자의 탄생으로 통신사업계의 경쟁적인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게 되었고 일본 전기통신공사인 NTT도 민영화 되었다.

일본의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설비의 보유 유무에 따라 크게 전기통신설비를 보유할 수 있는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설비를 보유하지 못한 제2종 전기통신사업자로 구분된다.(표1참조)

91년말 현재 일본의 제1종 통신 사업자는 기존의 NTT(일본전기전화)와 KDD외에 총 66개의 신규가입자가 진출하여 경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표2참조) 제1종 신규 전기통신 사업자는 크게 장거리계(3사), 위성계(2사), 지역계(7사), 국제통신(2사), 차량 선박 휴대전화(16사), 무선폭출(36사) 등의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신규사업자들의 특색을 살펴보면 자가통신설비를 활용하여 통신사업에 진출한 회사들이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즉 장

(표1) 전기통신 사업자 종류

구 분		특 징	참여조건	사업자 수
제1종 전기통신사업		전기통신 회선설비 보유 및 전기통신 역부제공	허가	68
2종 전기통신사업	특별 2종	제1종 사업자의 회선설비를 500회선 이상 임차하여 전기통신 역부제공	등록	31
	일반 2종	특별2종 사업이외의 제2종 통신사업자	신고	912

(표2) 일본전기통신 사업자 현황

구 분	NTT	KDD	자유화 이후 신규 참여한 통신사업자 (NCC)					
			장거리계	지역계	위성계	이동계	국제계	소 계
사업자수	1	1	3	7	2	52	2	66
사 원 수	266천	6,393	3,399	1,155	238	1,477	710	6,979

거리계에서 제2電電은 일본국철이 설립한 회사이며 일본고속통신은 일본도로공사의 통신설비를 활용하여 통신사업에 진출한 회사이다.

지역계 통신회사들은 모두 일본의 각 지역별 전력사들이 자체의 통신설비를 활용하여 통신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차량 선박 휴대전화 분야와 무선호출 분야의 회사들에도 전력회사들이 다수의 출자를 하여 설립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전기통신시장이 초기의 통신회선 교환설비 등을 갖추기에는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존에 자가통신시설을 보유하고 있었던 회사들이 이쪽에 쉽게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이다.

1991년 현재 특별 제2종 전기통신사업자는 27개사로서 국제 VAN 이나 데이터, 음성, 화상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일반 제2종 전기통신사업자는 779개사에 달하고 있으며 서비스의 제공형태별로 나눠보면 음성서비스 259개사, 이미지정보 서비스 132개사, 데이터서비스 502개사, 혼합서비스 104개사 등이다.

2. 國鐵의 통신사업 참여

日本國鐵은 철도사업 경영에서 배양한 전기통신기술 및 경험 등의 잠재능력을 살려서 전기통신사업 자유화 조치시 새로운 전기통신사업자로 진출하기 위해 東京-大阪 간에 광섬유케이블을 시설했다. 또한 국철에는 케이블을 시설하는데 최적의 전국망의 선로부지와 위성통신기술을 포함하는 자가철도 전화망의 운용기술, 정보기술인력 등의 재반자원이 전기통신사업 참여에 있어서 원동력이 되었다.

일본국철에서는 통신시장의 개방에 대비 1984년

10월 국철과 민간기업들 약50개사와 합작하여 일본텔리콤을 설립하여 1985년 6월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로서의 사업허가를 받았다.

상거리 신규사업자인 일본텔레콤에서는 국철의 전기통신설비와 통신설비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1986년에는 東京-大阪간 전용서비스를 개시하였고 1987년에는 시외 전화서비스를 개시했다.

그후부터 전국적으로 통신망을 확대하여 북으로는 北海道 旭川에서 남으로 九州, 沖繩까지 전국 45都道府縣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1989년 5월에는 철도그룹의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인 철도통신(주)와 합병하여 NTT 다음의 일본최대 전기통신회사로 부상하게 되었다.

철도통신(주)는 국철의 민영화시 구 국철로 부터 인수한 전국주요도시를 커버하는 총연장 7,000Km의 마이크로웨이브 무선망과 2,500Km의 광케이블과 동축케이블 및 53개소의 전화교환국의 설비를 보유하고 함께 10,000Km의 장대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열차의 운행관리와 좌석예약시스템 등을 운영해 왔으며 철도그룹의 회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용, 전화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일본텔리콤은 또한 이동통신분야에 참여하기 위해 1991년 7월에 수도권에서 디지털 방식의 자동차·휴대전화회사 (주)東京디지털폰을 설립하여 1994년부터 사업을 개시하게 되었다.

일본텔레콤에서 현재 제공하고 있는 통신서비스로는 시외전화 서비스, 시외공중전화 서비스, 전용서비스, 철도그룹 전화서비스, 철도그룹 전용서비스 등이 있다.

3. 도로공단의 통신사업 진출

일본 도로공단에서는 건설성 주도하에 일본 유력 기업 290개사와 함께 1984년 일본 고속통신(주)를 설립하였다.

일본고속통신은 장거리계 신사업자로서 1985년 6월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의 허가를 받아 東京, 名神 간 고속도로의 중앙분리대에 560Km의 광케이블을 부설하여 장거리 통신사업을 개시하였다.

일본고속통신에서 제공하는 통신서비스는 먼저 1986년 11월에 東京, 名古屋, 大阪을 영역으로 하는 전용서비스를 개시하였고 이어서 1987년 9월에 시외 전화 서비스를 시작했다. 1988년 3월부터는 광대역 무선서비스를 제공하였고 1990년 3월 부터는 東京, 名神 고속도로 서비스 지역에서 공중전화서비스를 개시하였다. 1991년말 현재 전용서비스는 18개 지역, 시외전화서비스는 20개 지역에서 제공하고 있다.

4. 전력회사들의 통신사업 진출

전력회사들은 전력을 생산 공급하는 설비를 운용하는데 있어서 고도의 정보통신이 요구됨에 따라 고품질 대용량의 정보 통신망 구축을 위해 송, 배전선망에 광케이블 도입하는 광섬유 복합 가공지선(OPGW)이라는 새로운 정보통신전송로를 확보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광섬유 복합 가공지선이란 낙뢰로부터 송전선 보호하기 위해 송전선 최상단에 설치하는 종래의 가공지선의 내부에 광통신용 섬유를 내장시킨 새로운 소재로서 송전선 보호의 기능에 획기적인 통신로가 부가된 것이다.

광섬유는 절연도가 극히 우수하여 낙뢰나 강전압에 대해 안전할 뿐만 아니라 꿈의 통신전송로라 불리

는 가장 우수한 통신정보의 전송로를 구성해 주고 있다.

광섬유복합가공지선에는 6심에서 24심 또는 필요에 따라 그이상의 광섬유 심선이 수용되는데 광섬유 한가닥으로도 전화회선 3만회선 이상의 전송이 가능하므로 사내통신에만 사용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잉여회선이 남아도는 실정이다.

일본의 전력회사는 민간기업의 형태로 지역별로 총 9개의 회사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전력회사들은 1985년 4월 통신사업이 자유화 된 이후 다양한 형태로 통신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1990년 현재 전력 9사의 전력공급용 케이블의 총연장은 330 만 Km로서 NTT의 통신회선 120 만 Km의 3배에 이르고 있다. 각 전력사는 이 방대한 송배전 설비에 광통신케이블망을 확충하고 그 여유회선을 이용하여 전기통신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력회사들은 이동통신 등 다양한 분야의 통신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들 9개 전력회사의 통신사업 참여배경과 현황을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東京전력

東京전력은 1986년 3월에 제1종 통신사업자로서 “東京通信 Network”를 설립하고 11월부터 전용선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1987년에는 新電電三社와 상호접속하여 Digital 영상서비스등 사업내용을 확대하였고, 1988년 5월에는 전화교환 서비스도 개시할 예정이다. 또 이동체 통신분야에서는 무선호출 Service 사업인 “Pocket Bell”을 취급하는 “東京 Telemessage”에 출자하여 1987년 10월에 사업을 개시 하였다.

東京전력 정보통신 사업참여현황

사업분야	사업내용	회 사 명	자 본 금	지 분	설 립 일
일반통신사업	전용선 서비스 전화서비스 등	東京통신네트워	300 억엔	33.4 %	86. 3
이동통신사업	이동전화서비스	일본이동통신 일본시티메디아	110 억엔 16 억엔	10.9 % 8 %	87. 3
무선호출사업	무선호출서비스	東京텔레메세지 외 4개사	1~20 억엔	2~9 %	89. 4~89. 10
CATV 사업	CATV 사업	CATV 東京 외 9개사	2~15 억엔	1~55 %	85. 3
부가통신	국제 VAN 사업	국제 VAN (주)	18 억엔	13 %	87. 9
국제통신사업	국제통신사업	일본국제통신	100 억엔	3.5 %	86. 7
		국제데이터통신	100 억엔	1.9 %	86. 11
기 타	지역정보제공	(주)후목종합센터 외 3개사	1~4 억엔	1~5 %	
	항만전화	東京灣마리네트	4.48 억엔	1.1 %	86. 12

關西전력 정보통신 사업참여현황

사업분야	사업내용	회 사 명	자 분 금	지 분	설 립 일
일반통신사업	일반전용 고속데이터통신 영상전송	大阪미디어(주)	120 억엔	25 %	85. 10
이동통신사업	자동전화 이동전화	關西셀룰라전화(주)	20 억엔	20 %	87. 6
무선호출사업	무선호출서비스	關西텔레메세지	10 억엔	25 %	85. 10
CATV 사업	CATV 사업	關西케이블서비스	4.8 억엔		89. 2
부가통신사업	국제 VAN 사업	K NET	20 억엔	2 %	

1987년 3월에는 자동차 전화사업으로 “日本 移動 通信”을 출자 설립하여 1988년 12월에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1987년 7월에 설립한 “日本 City Media”는 Teleterminal사업 계획회사로서 1988년 7월에 사업회사로 바꾸어 1989년 10월에 사업을 개시하였다.

그리고 “東京灣 Mariner”는 동경만내의 소형선박, 주변지역등에 신개발 항만용 무선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서 1986년 12월에 설립되어 1988년 3월에 사업인가를 받고 1988년 9월부터 사업을 개시하였다. 그리고 국제통신사업으로는 1987년말 우정성으로부터 사업인가를 받은 “日本 國際通信”, “國際 Digital通信”의 양사에 출자하였다.

또 “國際 VAN”을 1987년 6월에 설립하여 9월에 사업회사로 출발하고, 1988년 2월말 미국의 “Telnet”사와 상호접속 운용협정을 체결하여 비·일간의 국제 Data 통신서비스의 제공을 개시하였다. 또한 전력설비의 지지불인 배전전주를 이용하여 85년 부터 CATV 망구성을 갖추고 CATV 사업에 참여하였다.

나. 關西전력

1986년부터 정보통신사업에 본격 진출하면서 1986년 5월에는 고도정보통신 System의 Consulting회사인 “關西 Telemessage”를 설립하여 1987년 10월에 사업을 개시하였고 1987년 1월에는 유선통신사업에 본격

진출하였으며, 1987년 6월에는 자동차휴대전화 사업체인 “關西 Cellular 電話”를 설립하여 1989년 4월에 사업을 개시했으며 1987년 12월에는 국제 VAN 회사로서 “K Net 企劃”을 설립하였고 1989년 2월에는 關西케이블서비스를 설립하여 CATV 사업을 시작하였다.

다. 四國전력

1984년 7월에 설립한 “四電정보 Network Service”를 중심으로 정보통신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컴퓨터에 의한 정보처리를 주요업무로 하고 있으며 1985년 4월에 전기통신사업이 자유화됨에 따라 같은 해 7월에 제 2종 전기통신사업에 참여하였다. 이는 사내에 축적된 정보통신 네트워크 기술을 중심으로 관계회사와 관련업체를 연결하는 그룹VAN을 형성하고 나아가 전국적인 VAN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이동체 제1종 전기통신 사업인 자동차 전화사업과 Pocket Bell사업을 위하여는 1987. 7월에 설립한 “愛媛 Telemessage(주)”에 출자하고 1988. 3월에 사업을 개시하였고, 1987년 7월에는 CATV 망사업에도 참여하여 사업을 개시하였다.

라. 中部전력

1986년 3월에 “中部 Telecom Consulting”을 설립하

四國전력 정보통신 사업참여현황

사업분야	사업내용	회 사 명	자 분 금	지 분	설 립 일
일반통신사업	일반전용 고속데이터통신 아나로그전송	四國정보통신네트워크	20 억엔	45 %	84. 7
이동통신사업	이동전화사업	關西셀룰라전화(주)	7.5 억엔	20 %	89. 4
무선호출사업	무선호출서비스	향천텔레메세지 외 3개사	103 억엔		88. 7
CATV 사업	CATV 사업	덕도 CATV 외 1개사	5 억엔		87. 7

中部전력 정보통신 사업참여현황

사업분야	사업내용	회 사 명	자 본 금	지 분	설 립 일
일반통신사업	영상전송 고속데이터통신 아나로그전송	中部텔레커뮤니케이션(주)	120 억엔	35 %	86. 6
이동통신사업	이동전화서비스	일본이동통신	110 억엔	5.5 %	87. 3
무선호출사업	무선호출서비스	中部텔레메세지 외 1개사	3 억엔		87. 3
CATV 사업	CATV 사업	히마와리네트워	13.7 억엔		89. 6

九州전력 정보통신 사업참여현황

사업분야	사업내용	회 사 명	자 본 금	지 분	설 립 일
일반통신사업	일반데이터 고속데이터통신 아나로그전송	九州통신네트워(주)	48 억엔	33.3 %	87. 7
이동통신사업	이동전화서비스	九州셀룰라전화	10 억엔	20 %	87. 10
무선호출사업	무선호출서비스	九州네트워시스템 외 2개사	2 억엔		87. 9

北海島전력 정보통신 사업참여현황

사업분야	사업내용	회 사 명	자 본 금	지 분	설 립 일
일반통신사업	전송서비스 전화서비스 아나로그전송	北海島종합통신망	20 억엔	36.7 %	89. 4
이동통신사업	이동전화서비스	北海島셀룰라전화	7.5 억엔	20 %	89. 4
무선호출사업	무선호출서비스	北海島텔레메세지	4.5 억엔		87. 4

여 통신사업화의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이에 의하여 1987년 10월에는 이를 “中部 Communication”으로 社名을 변경하여 통신사업 “전용선 Service”에 진출하고 1987년 12월에는 우정성으로부터 사업인가를 받아 1988년 6월 영업을 개시하였다. 또 1986년 11월에는 “中部 Telemesssage”를 설립하여 1987년 10월에 무선호출사업을 개시하였으며 “静岡 Telemesssage”, “長野 Telemesssage”에도 출자하였다. 또한 1989년 12월에는 자동차 전화 사업체인 “日本 移動通信”에 동경전력과 함께 주요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하였다.

마. 九州전력

1987년 4월에 설립하여 1988년 3월 부터 사업을 개시한 “구주 Telemesssage(주)”는 福岡縣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Pocket Bell사업에 참여하였고 1987년 7월에 설립하여 1988년 10월부터 사업을 개시한 “구주통신네트워(주)”는 제1종 전기통신사업(전용선 서비스, 전화교환 서비스)을, 1987년 7월에 설립한 “구주정보서비스(주)”는 구주전력의 전산기를 이용하여 시스템개발 업무를 수탁하고 있으며 1989년 10월에 사업을 개시한 “구주 Cellular 전화(주)”는 자동차 전화사

업이 그 주업종이다. 구주전력은 자금력과 축적된 기술력을 동원하여 계속적으로 통신분야의 사업을 확대해 나갈것으로 보인다.

바. 北海島전력

전기통신사업 참여를 위해 1985년 8월에 제1종 통신사업 검토를 시작으로 1989년 4월에 北海島종합통신망을 발족하여 회선전송 사업을 개시하였고, Pocket Bell사업을 위해서 1986년 11월에 “北海島 Telemesssage(株)”를 설립하여 1987년 4월에 사업인가를 받고 10월에 영업을 개시하였다.

자동차전화사업에 대해서는 제 2전전과 공동으로 “北海島 Cellular 電話(株)”를 설립하였으며 CATV사업에도 1988년 6월 “札幌 Cable Television(株)”에 자본 참가를 하였고, 1988년 4월부터 우주위성중계도 서비스를 위하여 “北海島衛星通信 Network 研究所”를 설립하고 위성통신 서비스 사업의 참여를 검토하였다.

사. 東北전력

1987년 2월 宮懸내에 무선호출 서비스를 하는 “窮

東北전력 정보통신 사업참여현황

사업분야	사업내용	회 사 명	자 본 금	지 분	설 립 일
이동통신사업	이동전화서비스	東北셀룰라전화	10 억엔	20 %	88. 4
무선호출사업	무선호출서비스	窮城텔레메세지 외 6개사	9 억엔		87. 7 ~ 89. 4
부가통신사업	국제VAN 사업	東北정보네트워 서비스			

中國전력 정보통신 사업참여현황

사업분야	사업내용	회 사 명	자 본 금	지 분	설 립 일
이동통신사업	이동전화서비스	中國셀룰라전화 외 2개사	10 억엔	20 %	87. 11
무선호출사업	무선호출서비스	텔레메시지廣島 山口텔레메세지 岡山텔레메세지 산음텔레메세지	8.8 억엔 2 억엔 2.5 억엔 3 억엔		87. 5 88. 4 86. 10 90. 5
CATV 사업	CATV 사업	中國케이블비전			92. 4

北陸전력 정보통신 사업참여현황

사업분야	사업내용	회 사 명	자 본 금	지 분	설 립 일
이동통신사업	이동전화서비스	北陸셀룰라전화	7.5 억엔	20 %	88. 5
부가통신사업	국제VAN 사업	北陸정보시스템			92. 4

城 Telemesssage(株)”를 설립하여 제1종 전기통신 사업분야에 진출하였으며 1987년 12월에 사업을 개시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 1987년 11월에는 “福島 Telemesssage(株)”를 福島懸내에 설립하여 1988년 여름부터 사업을 개시하였다. 제2종 전기통신 사업분야에는 VAN을 중심으로 하는 “東北정보 Network Service(株)”를 1987년 7월에 설립하여 관계회사는 물론 일반기업과 Data 교환을 할 수 있는 일반 VAN Software를 완성하고 12월부터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제 2電電(株)과 공동으로 검토중인 자동차 전화사업을 위해 1988년 4월에 “東北 Cellular 電話(株)”를 발족시켰다.

아. 中國전력

전기통신분야에 조기진출하여 “岡山 Telemesssage”와 “Telemesssage廣島”를 설립하여 1987. 5. 29 우정성으로부터 Pocket Bell 사업을 허가받아 1987. 10월부터 사업을 개시하였다. 또한 山口지구에도 “山口 Telemesssage”를 설립하여 1987. 9월 사업화를 위해 사전조사를 한 후 1988. 7월에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자동차 전화사업을 위해서도 “중국 Cellular 전화”를 설립하여 1989년 가을에 사업을 개시하였고, 전용선 서비스 사업에도 진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자. 北陸전력

1987년 4월에 Computer의 Software 개발, 보수, 정보처리에 관한 Consulting 사업을 전개하는 北電정보 System Service(株)를 설립하였으며, 전기이용에 관한 조사 상담, 진기기기의 알선, 판매, 점검, 수리, 배전설비의 순시, 설계 등의 사업을 전개하는 北陸 영업 Service(株)를 설립하였다. 1987년 12월에 『자동차전화 사업화의 가능성 조사』를 제2電電(株)과 공동으로 검토하는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여 1989년 가을에 사업을 개시하였고, 그외에도 “고도 정보통신 담당” Working Group을 1987년 9월에 구성하였다.

IV. 프랑스 전력공사 통신사업 참여

프랑스 국영전력공사 EDF는 91년 6월 정부 시행령에 의해 이동통신분야가 개시됨에 따라 전국 22개 행정지역 중 5개 지역의 이동통신사업에 참여하고 1개 지역은 검토중에 있다. 참여형태로는 정부나 법령의 제약을 회피하기 위해 EDF가 전액출자한 HOLDING COMPANY가 설립한 지역별 RMS(Radio Mobile Service)사에 30% 정도의 지분인 약 500만 에서 700만 프랑을 출자하는 형태로 참여해 오고 있다.

또한 기존 전력설비 및 지지물을 이용하여 1989년부터 유선TV 방송사업을 시행해 왔다. 지방전화사업

으로부터 힌트를 얻어 처음에는 ANGER, ROANNE 및 니스 근처 지방의 케이블링 작업에서 시작하여 LORRAINE 지역의 AUDUNE-FE-TICHE 마을에 7천 가구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확장하였다.

91년 12월 말에는 60개 지역 14만 가구에 유선TV 방송을 위한 케이블설치를 확장했다. 설치대상은 텔레비전 난시청 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또한 다국어가 통용되는 국경지역으로 하였으며 극상이나 연극부대, 연주장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18~20개의 유선 채널을 제공하고 있다.

EDF는 이사업을 전담하는 자회인 VIDEPOELES을 각 지방마다 운영하고 있어 지역별 각 은행지점과 지역개발 협의회, 지역 산업체 및 지방신문과의 연계활동 등을 펴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85000가구가 가입하여 투자비는 1억 5천만 프랑에 달하고 있다.

V. 맺음말

해외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경쟁체제 시대를 맞이하여 사업기반을 확고히 하고 기업확장을 위해 자기 사업 이외의 경영다각화를 추구하고 있다.

특히 철도, 전력회사 등에서는 기존설비와 기술적 자원을 활용하여 전기통신사업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참여하여 투자의 폭을 넓여가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에서 자가통신설비를 이용한 통신사업의 진출이 가장 활발한 나라는 일본이다. 일본은 1985년 통신시장을 개방하고 자유경쟁체제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NTT 등 68개 사업자들이 자가통신설비를 활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보통신 사업참여 과정을 보면 일반적으로 다른 기업들과 합작을 통하여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형식으로 중점관심분야의 사업은 대주주로서 참여하고 그렇지 않은 분야는 소주주로서 참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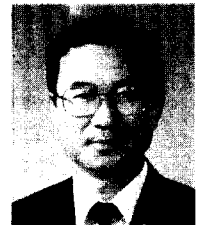
우리나라도 부가통신 사업분야는 이미 개방되어 150여개의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기타 분야의 사업도 곧이어 이내에 개방되어야 할 입장이다.

자원이 빈약하고 경쟁기반이 취약한 우리나라에서 개방후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국제경쟁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독점사업자에 의해 제공되어 오던 많은 통신서비스를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정책을 시급히 도입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자가통신설비 등 각 분야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통신자원과 기술인력 등을 총 동원하여 보유하고 있는 잠재력을 적극적으로

배양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김식현 『정보통신자원 활용 극대화를 통한 한국전력의 기업성 제고 방안』 1992. 12.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연구소
2. 김대영 『자가전기통신 제도의 발전 방향에 관한연구』 1992. 3. 충남대학교
3. 조백제 『전기통신제도의 발전방향』 1992. 12. 통신개발연구원 KISDI
4. 김정부 『정보통신 HAND BOOK』 1993. 11. 한국전력 정보시스템처
5. 白澤照雄 『전력 9사 NTT에의 도전』 1987
6. 제일법규출판(日) 『情報通信六法』 1991
7. 우정성(日) 『통신백서』 1992



김 창 기

- 1967년 2월 : 한양대학교 전기공학과 졸업
- 1967년 2월 : 한국전력 입사
- 1976년 6월 : 통신운영부장대리
- 1984년 8월 : 전자통신부장
- 1992년 6월 ~ 현재 : 정보시스템처 정보통신 사업 및 CATV 사업추진반장